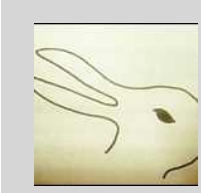


**인문계열 논술문제(3교시)**

지원학과 :	수험번호 :	성명 :
--------	--------	------



왼쪽의 그림은 비트겐슈타인의 『오리토끼』이다. 그림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동물의 형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우리는 이처럼 특정한 사물이나 사건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의 차이로 갈등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인간 본성으로 볼 때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제시문 <가>~<마>는 다양한 관점의 차이를, 제시문 <A>와 <B>는 ‘관용’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나타내는 내용이다.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4일 밤늦게 서울 광화문에서 명동까지 걸어가면서 ‘작은 지진’을 경험했다. ‘서울시와 함께 하는 싸이 글로벌 석권 기념 콘서트’라는 다소 촌스러운 작명(作名)마저 유쾌했다. 즐거운 소란이었다. 그런데 좀 심뜩했다. 이 수만 명이 열광하는 관객이 되는 것도, 성난 군중이 되는 것도 순간이기 때문이다. 싸이도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다. 이미 빠져리케 느껴봤을 테니 말이다.

싸이, 즉 박재상은 2003년부터 2005년 11월까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병역특례 요원으로 병역을 마쳤다. 그 사이인 2004년, MBC 방송은 싸이의 병역특례가 자격 미달이며, 금품수수로 인한 불공정 병역특례였다, 공연이 많아 부실 근무였다고 보도했다. 싸이의 자격증에는 문제가 없고, 돈도 오간 적이 없으며, 공연은 주말 자유 시간에 이뤄진 것이란 게 밝혀졌다. 그러나 2007년 검찰은 싸이를 고발했고, 병무청은 ‘지정업무 외 종사 사유’로 제입대 통보를 했다. 싸이가 한 업무인 ‘디지털 사운드, 기획, 테스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였다.

군대에 가본 적이 없는 여성으로서, 싸이에게 특별한 호오(好惡)의 감정이 없는 기자로서 당시 느꼈던 의문은 ‘그 책임을 왜 온전히 싸이 혼자 져야 하고, 그것도 제입대라는 방식으로 져야 하는가’였다. 수업 시간에 학생이 국어 교과서 대신 한문 교과서를 펴고 있었다면, 교사가 지적해줘야 한다. 그러고도 시정되지 않았다면, 그 때 벌을 주면 된다. 싸이는 복무 중 그 어떤 지적도 받은 적이 없었다. 양측이 다 소홀했던 것이다. 하도 궁금해 몇몇 법조인에게 물어보니 ‘논란의 여지가 많다’부터 ‘결코 제입대 사유는 될 수 없다’까지 답은 다양했다. 그러나 여론은 달랐다. 특히 “나는 뻑세게 현역 마쳤다”는 남성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 들끓는 분노 앞에서는 누구도 다른 논지를 제기할 수 없었다. 싸이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법원 판단에 군중 심리나 높은 분의 뜻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간간히 들렸다. 물론 싸이는 소송에 패배해 군대에 두 번 감으로써 훗날 가수로 재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다. 그렇다고 당시 ‘무조건 매우 처라’했던 분위기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불량 중년’ 싸이는 이번에도 ‘사고’를 쳤다. 흥에 겨운 싸이는 소주 한 병을 수만 명 앞에서 병째 마셨다. “아무리 싸이라지만, 아이들도 와 있고 해외로 중계되는 공연장에서 소주를 병나발 불다니. 글로벌 가수다운 매너를 지켜야 한다.” “무슨 소리냐. 싸이는 원래 공연할 때마다 그랬다.” 두 의견 모두가 일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싸이가 한국을 밟았는데 술 좀 마시면 어떠냐”며 ‘싸이님 숭배’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건 ‘맹목(盲目)’이다. “품위 없이 어디서 술이냐”고 비난하는 건 이율배반이다. 싸구려 문화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노래 ‘강남 스타일’은 바로 그렇게 세상 룰을 확 뒤집는 불량스러운 태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싸이 음주 논란은 한쪽의 완승이나 완패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애매성이 차라리 다행스럽다. 우리 문화는 이리 쏠리고 저리 몰리는 ‘춘티’에 너무 오래 발목 잡혀 왔다.

-박은주, 「글로벌 싸이’의 소주 병나발 사건」, 『○○일보』-

<나>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고은, 「그 꽃」 전문-

<다>

어느 날 한 소녀가 자기 어머니에게 물었다. “저기요 엄마, 인간의 첫 조상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건 말이야, 하느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어. 그들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이 나중에 부모가 되어 또 자식을 낳고, 그런 식으로 이어져 오면서 우리 겨레가 형성된 거야.” 이를 뒤, 소녀는 자기 아버지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 아버지의 대답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수백만 년 전에 원숭이들이 차츰차츰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된 거야.” 소녀는 심한 혼란을 느끼며 어머니에게 쪼르르 달려간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엄마는 하느님이 우리의 첫 조상을 창조하셨다 하고, 아빠는 원숭이들이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하니 말이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하는 말, “아가야, 그건 아주 간단해. 엄마는 엄마 집안 얘기를 한 거고, 아빠는 아빠 집안 얘기를 한 거야.”

-베르나르 베르베르, 『웃음』에서 발췌-

**인문계열 논술문제(3교시)**

지원학과 :	수험번호 :	성명 :
--------	--------	------

<라>

논평은 우선 평론가의 정치적 성향에 의해 좌우된다. 그 다음으로는 신문사의 정치노선에 종속된다. 이것은 신문사 사장의 위임을 받은 편집장 및 편집 참모들에 의해 감독되고 보호된다. 이 이념 속에는 독일의 대중매체와 여론의 현주소가 반영되어 있다. 신문사들은 여론의 독점지대를 형성한다. 이는 정당들이 사회를 점령한 결과다. 이들의 유희 속에 언론기관들이 맞물려 들어가 동조한다. 이를 위해서 신문사들은 독자가 수긍할만한 정치적 진영논리를 통해 기사를 생산해야 한다. 즉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은 자신의 정치이념과 부합하는 가치관을 가진 정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생산하기 어렵다. 신문사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정치적 성향과 동일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고정 독자들을 결속하여 특정한 성격을 지니는 공동체를 형성하며 이들에게 동일한 색깔의 읽을거리와 정보들을 공급한다.

-디트리히 슈바니츠, 『교양』 중에서 발췌·수정-

<마>

빙리(Bingley) 씨는 잠시 춤을 멈추고 친구에게 춤을 추자고 권하는 중이다. “이봐, 다시(Darcy)! 춤을 좀 추지 그러나. 이렇게 바보같이 혼자서 있다니 보기 싫군.” “안 춘다니까. 자네 내가 춤추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고 있잖아. 특히 파트너가 아는 사람이 아니면 말이야. 자네 누이들은 각자 파트너가 있고, 이 방에서 마주 보고 서는 것 자체가 형벌이 아닌 여성은 없지 않은가. 자네 여기서 유일하게 예쁜 여자하고 춤을 추고 있어.” 다시 씨가 베넷(Bennet) 집안의 딸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 그녀는 여태 내가 본 사람 가운데 최고로 아름다운 여성이야. 하지만 자네 바로 뒤에 앉아 있는 그녀 여동생도 무척 예쁘군. 또 아주 상냥할 것 같아. 내 파트너보고 자네에게 소개해 달라고 할게.” “누구 말이야?” 다시는 돌아서면서 잠시 엘리자베스(Elizabeth)를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거두며 냉정하게 말했다. “그런대로 괜찮긴 하네만, 내 마음을 끝 만큼 예쁘진 않군. 그리고 난 지금 다른 남자들에게 무시당한 아가씨나 달래줄 기분도 아니라네. 자네는 파트너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미소나 즐기게. 나와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빙리 씨는 그의 충고를 따랐다. 다시 씨는 멀어져 갔지만, 엘리자베스는 그에게 결코 좋은 감정을 갖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중략)

“그 사람의 오만은 말이야, 다른 경우처럼 그렇게 불쾌하지는 않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집안 좋고 재산 많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렇게 훌륭한 젊은이는 자신을 높이 평가하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에게는 오만할 권리가 있어.” 루커스(Lucas) 양이 말했다. “그건 맞는 말이야. 내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만 않았어도 나도 그의 오만을 용서할 수가 있었을 거야.”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오만은 무척 흔한 결점이라고 생각해. 내가 오래 독서해온 바에 비추어 볼 때, 오만이란 정말 흔한 것이고, 인간 본성은 오만한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이 확실해. 자신의 일부 자질에 대해 만족스러운 기분을 느껴 본 일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 자신의 사색을 자랑으로 여기는 메리(Mary)가 말했다.

(중략)

빙리가 언니에게 끌린다는 것에 몰두하느라 엘리자베스는 정작 자신이 빙리 친구의 눈에 어느 정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처음에 다시 씨는 그녀가 예쁘다는 것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았다. 무도회에서 그녀를 봤을 때는 전혀 칭찬할 마음이 들지 않았었다. 그리고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그녀를 바라보며 비판만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 친구들에게 그녀의 얼굴에서 예쁜 데라곤 찾을 수 없다고 분명히 하자마자, 그 검은 눈동자에 담긴 아름다운 표정 때문에 그녀의 얼굴이 매우 지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자마자 그만큼 체면이 안서는 또 다른 사실도 깨달았다. 비판적 안목으로 그녀 체형에서 완벽한 대칭을 이루지 못하는 몇 군데를 찾아내긴 했지만, 그녀의 모습이 발랄하고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던 것이다. 속으로 그녀의 몸가짐이 상류사회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꾸밈없이 장난스러운 태도에 매혹되고 말았다. 그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녀에게 그는 어디를 가도 불쾌하게 굴고, 자신을 함께 춤출 만큼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남자에 불과했다.

-제인 오스틴, 『오만과 편견』 중에서 발췌·수정-

2013학년도 수시 1차 논술고사

**인문계열 논술문제(3교시)**

지원학과 :	수험번호 :	성명 :
--------	--------	------

**<A>**

관용(tolerance)은 ‘화이부동’의 정신에 아주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논어에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이불화한다(君子 和而不同, 小人 同而不同)”라고 쓰여 있습니다. 군자는 획일화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다른 것을 그대로 놔둔 채 평화롭게 공존한다면, 소인은 같으면서, 그러니까 별 차이도 없으면서 불화한다는 거죠. 화이부동을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예를 들어, ‘70퍼센트 정도가 A종교 신자이고 20퍼센트 정도가 B종교 신자이며, 10퍼센트 정도는 종교가 없는’ 사회를 상정해 볼 때, 화이부동이란 곧 70퍼센트인 A종교 신자와 20퍼센트인 B종교 신자, 10퍼센트인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신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대로 평화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는 70퍼센트인 A종교 신자들이 다수의 힘으로 20퍼센트인 B종교 신자들이나 10퍼센트의 종교 없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강제해 온 역사이고, 이 강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억압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온 역사입니다.

관용의 궁극적인 지향이 인간의 참된 자유라고 할 때, 그 핵심은 “맘껏 자유하라, 하지만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모든 차이를 용인하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관용은 사람들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다름을 존중하라는 것은 ‘역지사지(易地思之)’를 통해서 보면 결국 나를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참된 자유를 지향하는 인간이 맘껏 자유하고 다양성을 발휘하되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멈출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관용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이를 용인하라”는 주장은 차이를 용인하지 않아 온, 그래서 억압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인간의 정신자세와 행동에 대해 단호한 반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홍세화, 「성찰하는 개인에서 행동하는 시민으로」, 『민주주의의 무기, 폴레랑스』 중에서 발췌·수정-

**<B>**

관용이 내건 평화주의에도 불구하고 관용이라는 단어에는 선, 협력, 관대함이라는 가치와 함께, 불쾌함, 일방적 판단, 혐오라는 상반된 의미가 함께 표현되어 있다. 관용은 실은 존재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것, 즉 바람직하지 않은 것, 천박한 것, 부적절한 것, 더 나아가 불쾌하고 매스꺼운 것들의 존재를 규제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관용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극복하기보다는, 단지 문제에 대처하는 전략을 제시해 줄 뿐이다. 관용은 겸손한 우월함의 위치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관용을 자유주의의 핵심으로 보는 오킨조차 자유주의 법질서가 소수 문화에 존재하는 명백히 여성 혐오적이고 성차별적 제도와 풍습[예컨대 아동 매매혼이나 일부다처제, 관습적인 여성 신체 훼손(毀傷)]을 용인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성차별적’일 뿐 아니라 ‘야만적’ 행위라고 부르는 지점에, 명확히 관용의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관용은 문명화된 실천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야만적 행위는 관용의 울타리 밖에 놓인다.

이런 한계 때문에 관용은 실제 정치에서 언제나 지배자가 베푸는 미덕으로서만 기능한다. 소외된 자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할 때조차, 관용은 지배의 다른 표현이다. 개인적 덕목으로서의 관용 역시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를 상정하고 있다. 관용의 실천은 언제나 고귀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관용의 대상은 필연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는 관용적인 사람이다”라는 선언은 화자를 품위 있고 예의 바르며, 절제와 아량, 세계 시민주의와 보편성, 그리고 폭넓은 시야를 갖춘 사람으로 만드는 동시에, 관용의 대상이 되는 이들을 부적절하고, 무례하며,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이들로 만든다.

-웬디 브라운, 『관용: 다문화제국의 새로운 통치전략』 중에서 발췌·수정-

**【문제 1】** 제시문 <나>~<마>를 읽고 관점의 차이를 유발시키는 핵심 개념을 각 제시문에서 1개씩 총 4개를 유추하고, 그 근거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그리고 그 개념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제시문 <가>에 나타난 것과 같은 관점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800자 내외)

**【문제 2】** 제시문 <A>와 <B>는 ‘관용’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시문 <A>와 <B>의 논점의 차이를 요약하여 서술하고 이들 중 하나의 주장에 근거하여 제시문 <가>에 관용의 관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서술하시오. (1000자 내외)



## 인문계(3교시) 논술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

### 출제 의도

2013학년도 인문계열 수시논술고사(3교시) 문제의 테마는 ‘관점의 차이’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지역 갈등과 같은 오랜 이슈와 함께 보수와 진보의 이념, 그리고 세대 간 가치관의 갈등이 부각되면서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방송 토론 프로그램 시청은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타인의 의견을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에게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가치관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에 귀착되는 경우를 흔히 발견하게 된다. 본 고사는 이러한 현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의사소통 하는 상황, 즉 커뮤니케이션 장면에서 있게 될 때 대부분 머리와 가슴이 비어 있는 상태로 임하지는 않는다. 이미 상당량의 정보를 머리와 가슴 속에 지닌 상태에서 커뮤니케이션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마다 겪어 온 과거의 경험들이 다르고,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는 언어에 대한 지식과 같은 지식체계가 다르고, 상대방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문자나 언어로 전달한다고 해서 그 의미와 내용이 똑같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 지점에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어려움이 자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고사는 관점의 차이를 스키마(schema)나 인간의 본성(개인의 가치관, 신념, 취향, 관심, 맥락의 차이 등)의 차이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측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검증하고자 했다. 따라서 본 고사의 목적은 어떠한 이슈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을 분석해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이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지고, 그로 인해 이슈의 본질을 분석하여 해결책에 접근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국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공감대를 도출해낼 수 있게 되는 논리적 과정을 이해하는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이 각각의 제시문에서 관점의 차이가 발생하는 핵심 원인을 파악하여 개념화하고, 인간 본성과 경험이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관점의 차이가 불가피한 상황을 이해하고, 실제 사례에 객관적으로 적용하여 공감대 형성의 해법을 도출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는 지에 대해 복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 제시문 해설

제시문[가]는 싸이의 병역관련 문제와 시청 앞 광장에서 있었던 공연에 관한 신문의 칼럼을 일부 발췌한 것이다. 최근 싸이가 시청 앞 광장 공연에서 소주를 병채 마신 행동이 이슈가 되어 찬반 의견이 분분하였다. 이 글에서는 싸이의 시청 앞 공연과 과거 싸이의 병역문제에 대한 대중들의 다양한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기자의 양가적인 반응 역시 잘 드러나 있다. 수험생들이 친숙한 대중문화라는 주제 속에서 사람마다 동일한 이슈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글이다.

제시문[나]부터 [마]는 인간의 다양한 관점을 유발하는 요인들에 관한 것이다. 제시문[나]에서는



고은 시인의 「그 꽃」의 전문을 수록한 것으로 시의 문학적 의미 보다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는 인간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제시되었다. 산을 오르는 누군가를 상상해 보고, 올라갈 때는 못 보았던 꽃이 내려 갈 때는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이다.

제시문[다]에서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웃음』 중에서 발췌한 글이다. 한 소녀가 엄마와 아빠에게 인간의 조상이 누구냐는 질문을 한다. 일반적으로 엄마와 아빠는 같은 대답을 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엄마 아빠는 각기 다른 답을 제시한다. 엄마는 창조론에 근거하여, 아빠는 진화론에 근거한 답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엄마와 아빠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엄마와 아빠의 종교적 믿음과 신념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제시문[라]는 디트리히 슈바니츠의 『교양』 중에서 발췌, 수정한 글로서 독일 대중매체의 기사 생산과정이 신문사의 정치적 노선과 진영논리에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글이다. 신문기사가 어떠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문사는 자신이 취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정치적 노선을 지지하는 독자층을 고려하여 특정 정치적 이념에 부합하는 기사를 생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치관이나 성향, 취향에 따라 동일한 사회현상에 대해 다른 내용의 기사가 생산되고 있음을 비판하는 글이다.

제시문[마]는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중에서 발췌한 글로서 편견과 선입견에 따라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문학적 텍스트의 성격상 의미를 확일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제시문은 편견이나 선입견이 같은 사물이나 현상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대상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위치가 어떻게 관찰자에게 영향을 주는 지 역시 보여준다.

제시문[A]는 필리프 사시에의 『민주주의의 무기, 톨레랑스』에 수록된 홍세화 인터뷰 「성찰하는 개인에서 행동하는 시민으로」의 일부를 발췌 수정한 것이다. 이 인터뷰는 필리프 사시에 글의 주제인 관용(톨레랑스)의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서문과 같은 것이다. 저자는 관용을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요구되는 기본적인 가치로 보고, 다른 것에 대한 인정과 다양한 집단의 평화로운 공존을 강조한다. 관용의 궁극적 지향은 인간의 참된 자유인데, 진정한 의미의 자유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다양성을 발휘하고 자유를 누리는 것임을 주장한다.

제시문[B]는 웬디 브라운의 『관용: 다문화제국의 새로운 통치전략』 중 발췌 수정한 것으로 관용에 대하여 제시문[A]와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 저자는 관용에 대해 표면적으로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지만 관용이 내세우는 가치들의 이면에는 상반된 의미가 함께 공존함을 주장한다. 즉 관용은 다름에 대한 인정, 타인에 대한 포용과 협력 등을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동시에 다름, 타인에 대한 선긋기를 내포하며 나오는 다른 바람직하지 않은 것, 부적절하고 천박하게 규정되는 것들을 규제하려는 의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실 정치에 관용이 적용될 때는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베푸는 것, 사회의 주류가 소수자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관용을 실천하는 자와 관용의 대상이 되는 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상정하게 된다. 저자는 관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는 포용, 협력, 수용, 민주주의와 보편성 등의 긍정적 의미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사람들을 구분 짓고, 차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문제 해설

### [문제 1]

이 문제는 제시문 [나]~[마]를 통해 관점의 차이를 유발하는 핵심 개념을 각 1개씩 총 4개를 유추하고, 각 개념을 도출하게 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다양한 형식의 지문과 상황에서 인간이 관점의 차이를 갖게 되는 원인들을 찾아보고 이를 추상화된 개념으로 유추하도록 하였다. 제시문 [나]는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을 내려올 때 보게 된 상황과 맥락의 차이를 생각할 수 있다. 제시문 [다]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대비시킨 것으로 세계관의 차이, 지식체계의 차이, 신념과 믿음의 차이를 핵심 개념으로 뽑아낼 수 있다. 제시문 [라]는 개인의 가치관, 성향, 취향 등에 따라 동일한 사회현상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제시문 [마]는 등장인물들의 대화 속에서 편견이나 선입견이 대상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관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각 제시문을 통해 맥락과 상황, 신념과 지식체계, 가치관이나 개인의 성향과 취향, 선입견과 편견에 의해 관점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고,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제시문 [가]에 드러난 관점의 차이들을 설명할 수 있다.

### [문제 2]

2번 문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관용에 대해 다른 입장을 제시하는 두 개의 제시문을 읽고 이들의 논점의 차이를 서술하는 것이다. 제시문 [A]는 다원화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관용을 바라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관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제시문 [B]는 관용을 현실세계에 적용할 때에 담길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문 [B]의 입장이 제시문 [A]가 주장하는 관용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세계 적용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연관시켜 서술할 수 있다.

둘째는 두 개 제시문의 주장 중 하나에 근거하여 제시문 [가]의 가수 싸이와 관련된 논란에 적용하는 것이다. 제시문 [A]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름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강조하는 관용의 입장에 근거한다면 싸이의 군대 문제와 병나발 사건은 우리사회의 기본적인 원칙에 크게 위배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제시문 [B]에 근거하면 관용을 베푸는 자와 관용의 대상과의 위계적 관계를 상정하고 싸이의 군대 문제와 병나발 사건을 해석할 수 있다.